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¹⁾
The Virtues of Christian's Spirituality
Development
- 베퉀1장1-11절을 중심으로

임영효²⁾

목 차

1. 서론 | 186
2. 영성개발의 근거 | 189
3. 영성개발의 필요성 | 195
4. 영성개발의 방편들 | 200
5. 영성개발의 결과 | 213
6. 결론 | 219



요약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필요한 덕성들 - 벨후 1장 1-11절을 중심으로 -

영성개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영성개발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은 조화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 숫자가 많고 열심도 있는데 반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성을 삶에서 떼어내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가볍게 취급될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놀라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세워나가고 심화시켜 주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올바른 영성신학의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과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영성 개발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쏟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룩해 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근거와 영성개발의 필요성과 영성개발의 방편들과 영성개발의 결과들을 베드로후서 1장의 성경본문에 근거하여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성형성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벤후 1장 5-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신적 성품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더욱 풍성히 지녀야 할 덕성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활동이나

요약

무의욕에서 일어나지 않음을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은혜의 삶은 지속적인 영성개발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영성개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근거하고 있으며(벧후 1:1),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이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약속과 자원을 주셨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다(벧후 1:3-4).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개발은 일평생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영적 성숙을 향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덕성들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가운데서도 견고히 설 수 있으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승리자로서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The Virtues of Christian's
Spirituality Development
- based on 2 Peter 1:1-11 -*

주요어

영성개발, 영적 성장, 신적 성품, 덕성, 배교, 하나님의 형상

Abstract

The Virtues of Christian's Spirituality Development - based on 2 Peter 1:1-11 -

Prof. Dr. Young Hyo Im

This paper deals with virtues of Christian's spirituality development. The ultimate goal of spirituality development is to imitate Jesus Christ who is the whole image of God. To imitate Jesus is to be changed into the true self. However, contemporary Christians are satisfied with just being called Christian.

Especially, Korean Christians are said to be lost the harmony and balance on spirituality development. They are thinking that spirituality is one thing, and actual life is different thing. Thus Korean churches should complement the weakness part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establish the right spirituality theology.

In this paper, the foundation of spirituality development, the necessity of spirituality development, the eight mean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nd the result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are discussed on the basis of chapter 1 of 2 Peter.

Specially, 2 Peter 1:5-7 shows the concrete virtue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in order to nourish the divine character of the Christians. Chapter 1 of 2 Peter indicates that the spirituality development of Christians does not occur in non activity or non willingness. It shows that spiritual growth does not happen automatically and the life of grace does not exclude the effort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The divine spirituality development is based upon God's salvation work which was accomplished in Jesus Christ(2 Peter 1:1). The reason of Christians' participation is that God provided every promise and resources for this spirituality development(2 Peter 1:3-4). Accordingly, The efforts of spiritual growth is not the option but the mandatory for every Christian.

In conclusion, when Christians continually nourish these virtues, they are able to stand firmly in every environment, also are convinced of their salvation, and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out apostacy.

Keywords | spirituality development, spiritual growth, divine character, virtue, apostacy, the image of God

1. 서론(Introduction)

영성개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그 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영성개발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
- 1) 본 논문은 2010년도 고신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2)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성경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연구”(도서출판 영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역자”(도서출판 영문), “유다서 강해와 설교”(도서출판 영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도서출판 영문), “신약성경 핵심 가이드”(도서출판 영문), 논문으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 “선교와 교회성장의 원천으로서의 부흥(영문)”,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성육신적 전도방법에 대한 고찰”,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로서의 탐사역에 관한 연구”, “영적 지도력과 사역개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 “영성개발과 교회성장” 등 다수가 있다.

yhim@kosin.ac.kr

- 3) 시양-양탄, 더글라스H. 그레그, *성령과의 즐거운 동행*, 황수철 역, 2000, 예영커뮤니케이션, pp. 301-302.

현실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성대학교의 장대현 교수는 “한국교회는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도를 강조하고 많은 집회에의 참여를 독려한다.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공동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 집회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또는 불건전하다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말이나 집회 참여의 강조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내용이 빈약한 채 사람들만 많이 동원해 놓은 교회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그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그 숫자가 많고 열심도 있는데 반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성을 삶에서 떼어내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가볍게 취급될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놀라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세워나가고 심화시켜 주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올바른 영성신학의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17세기 위대한 영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런 역할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영성 개발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개인의 영성개

4) 장대현,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육*,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9, p. 16.

발 보다는 사회개혁에 교회가 더 치중하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고, 사회란 결국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인을 희생하여 대중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모든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침몰하게 되어졌고, 고상한 인생관을 소유하고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적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한바 있다. 그는 “국가적 회복의 지름길은 개인적인 소명의식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려는 개인적인 소망의 회복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⁵⁾

“디지털 목회 리더십”의 저자 이성희 목사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성과 평신도와 소그룹이라고 진단하면서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⁶⁾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케네스 O. 겐젤(Kenneth O. Gangel)은 성숙한 영적 지도자를 특징짓는 덕목들을 뱀후 1:5-8에서 묘사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근거와 영성개발의 필요성과 영성개발의 방편들과 영성개발의 결과들을 베드로후서 1장의 성경본문에 근거하여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성형성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5) D. M. Lloyd Jones, *Expository Sermons on 2 Peter*,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pp. 233-234.

6) 이종표, *교회발전을 위한 진도개발*, 쿤란출판사, 1999, pp. 192-193.

7) 케네스 O. 겐젤, *교회교육의 리더십*, 권명달 역, 보이스사, 1991, p. 209.

2. 영성개발의 근거 (The Foundation of Spirituality Development)

그리스도인이 신적 성품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더욱 풍성히 지녀야 할 덕성들을 사도 베드로는 벤후 1장 5-7까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본문 1-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가운데서도 견고히 설 수 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영원한 그 나라에 승리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 참으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다.

1장 1절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the saving belief)”을 의미하는 것이다.⁸⁾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⁹⁾의 의”라는 말씀의 ‘의’(righteousness)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일컫는 것이다.”¹⁰⁾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정당한 기초와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빛은 다 지불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토마스 R.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는 본문에서의

8) J.N.D. Kelly,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Jude*, (Peabody, Massachusetts, 1969), p. 296.

9)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 성경에서 오직 하나의 정관사가 성, 수, 격이 일치하는 두 명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신약의 여러 구절들 중 하나이다(요1:1,18, 20:28, 롬 9:5, 딤후 2:13, 히 1:8).

10) Simon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the Epistle of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p. 241.

“의”(righteousness)는 “구원하시는 의”(his saving righteousness)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변치않는 사랑과 자비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로운 선물을 의미한다(시 22:31, 31:1, 35:24, 28, 40:10, 사 42:6, 45:8, 13, 51:5-8, 미 6:5, 7:9)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본문에서의 믿음은 인간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1절의 “받은”이라고 하는 분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¹²⁾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1절에서의 믿음은 유다서 3절에서처럼 객관적인 믿음(objective faith: 형성된 기독교 진리체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드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는 개인적인 믿음(personal faith) 혹은 주관적인 믿음(subjective faith)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두는 신뢰를 일컫는 것이다. 사이먼 J. 키스터메이커(Simon J. Kistemaker)는 “믿음과 의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a personal trust in God)이며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어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내린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¹³⁾

1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를 앎¹⁴⁾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11) Thomas R. Schreine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 2 Peter, Jude*, Vol. 37.,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p. 286.

12) 여기에 “받은”이라는 단어 “랑카노”(lancho)는 “제비뽑기로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받게 되어진 선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13) Simon J. Kistemaker, op. cit., p. 242.

14) 본문에서의 “앎”이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써 “개인적으로 포용되고 개인의 종교적 삶에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는 참되고 명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

말씀하고 있다. 칼빈(Calvin)은 마 11장 27절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하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알려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⁵⁾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¹⁶⁾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은혜와 평강은 믿는 자 속에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면 알수록 그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도 빌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였던

단어는 본서신의 주요 단어들 가운데 하나로서 1장 3절, 8절, 2장 20절에 나타나고 있다. R.C.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1 and 2 Epistles of Peter, the three Epistles of John, and the Epistles of Jude*,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6), p. 253. 바클레이(Barclay)는 본문의 “앎(지식)”은 끊임없이 증가되어지는 지식, 항상 전진해 나가는 지식, 풍성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끊임없이 심화되는 인격적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William Barclay,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pp. 294-296. 존 맥아더(John MacArthur, Jr)는 이 지식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친밀한 이해의 수준을 수반하는 충만하고 부요하며 철저한 지식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Peter & Jude*, (Chicago: Moody Publishers, 2005), p. 24. 이 지식은 신적 진리(divine truth)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골 1:9, 10, 딤후 2:25, 3:7, 딤후 1:1, 히 10:26).

15)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Hebrews and 1 and 2 Peter*, (Grand Rapids: Eerdmans, 1963), p. 328.

16) 로버트슨(A.T. Robertson)은 본문 2절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는 표현도 1절에서 처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원어대해설: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Vol. VI., 요단출판사, 1985, p. 217.

것을 볼 수 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얻어지는 것으로(요 7:16-17)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8:31-32),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며(행 8:8, 13:52, 요삼 3-4), 영생으로 인도하고(요 17:3),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벧후 1:2).

1장 2절의 정확한 번역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증가되어 지기를”(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이다. “증가되어 지기를”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몇 안되는 회구법 동사인데 $\pi\lambda\eta\theta\upsilon\nu\omega$ (I multiply)의 회구법 부정과거 수동태이다. 수동태는 하나님이 증가시키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부정과거는 constative¹⁷⁾를 나타내며, 회구법은 소원을 나타낸다.

은혜¹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범죄한 인류에게 부여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비공로적인 호의, 혹은 총애(Favor)로서 공로를 배제 하며(롬 11:6), 죄를 용서하는 자비의 행동(롬 5:8)이며 그 관계를 의미한다(엡 1:6-7, 딤후 1:9, 딤텔 3:7). 이 은혜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제거되고(엡 1:7), 의롭다하심을 받게 되어지고(롬 3:24, 갈 2:21),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17) 집약적 부정과거(Constative Aorist)는 그 시작이나 끝이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전체 속에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그 동작은 하나의 사실로서 간단하게 진술된다. 이 부정과거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동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며, 한 진술 안에 여러 개의 연속된 사건을 집약할 수도 있다. 또한 오래 지속된 동작을 총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정과거를 비한정적 부정과거(Indefinite Aorist), 역사적 부정과거(Historical Aorist), 요약적 부정과거(Summary Aorist), 그리고 복합적 부정과거(Complexive Aorist)라고도 부른다.

18) 은혜의 본래의 의미는 기쁨(joy), 즐거움(delight), 아름다움(beauty), 달콤함(sweetness), 매력(attractiveness), 사랑스러움(loveliness). 호의(good-will), 친절(kindness), 자애, 인자(loving-kindness), 은총(favor), 감사(thankfulness), 용서(forgiveness)의 뜻을 가지고 있다(눅 2:52, 행 2:47, 고전 10:30, 엡 4:32).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심령이 유쾌해지고, 매력적인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charming and attractive person)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개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고 있다

된다(엡 2: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처리해 주지 않는 한 결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평강¹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적 평안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 평강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강의 축복은 영적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게 되고, 평강은 갈등의 시기에 찾아오는 긴장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이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신약에서의 순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고 결코 그 반대는 없다. 그 누구도 먼저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평화를 체험할 수 없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은혜의 특성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련하여 경험되어진다. 하나님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손을 뻗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또한 죄인들의 계속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일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야만 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과 인정을 받은 것을 알게 될 때, 그 결과로 깊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

19) 평강(에이레네)은 단순히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살롬”의 헬라이어 번역으로서 영적인 온전함(wholeness)과 부유함(richness), 영적인 행복(spiritual well-being), 영적인 면에서의 번영, 번창(prosperity), 전인의 구원(salvation), 건강(health), 안전(security), 조화(harmony), 안식(rest), 자유(freedom), 신뢰(trust)의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신약에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증가시키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지기를(May mercy, peace and love be added to you)”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증가되어지기를 (multiplied)”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두배, 세배, 네배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선물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곱하기표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들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곱하기 표들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2=4$, $4+4=8$, $8+8=16$, $16+16=32$ 로서 계산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곱하기 셈은 완전히 달라진다. 즉, $2 \times 2=4$, $4 \times 4=16$, $16 \times 16=256$, $256 \times 256=65,536$ 으로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선물들에 곱하기 원리를 적용하실 때 그 결과들은 측량하기가 어렵게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 되어질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본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영성개발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of Spirituality Development)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²⁰⁾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을 통하여 (through)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²¹⁾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본문에서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부여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 1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the eternal

20) 본문 3절의 “그의 신기한 능력”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의 능력인지에 대하여 어떤 주경신학자들은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다(Bauckham, Bigg, D. J. Moo).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다(Kelly, D. G. Horrell). 그러나 토마스 R.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는 이 단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선행 단어가 2절의 “우리 주 예수”이고, 게다가 “능력”(뒤나미스)이라는 단어는 본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절의 “그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본 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op. cit., p. 291). 사도 바울은 엡 1장 19-20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우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마 14:18-21, 25, 24:30, 막 4:39, 눅 5:17, 요 2:7, 11:43-44, 롬 1:4, 고후 12:9, 히 1:3, 7:25, 뱌후 1:16 에서 언급하고 있다.

21) “주셨으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도레오”는 “도론”(선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단순히 준다는 의미를 가진 “디도미”에 비해 선물로 준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특수한 단어이다. 본문에서는 완료시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미 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life)”이심을 밝혀주고 있다. 마빈 빈센트(Marvin R. Vincent)는 이 생명은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²²⁾ 주경신학자 렌스키(Lenski)는 이 생명은 “가장 충만하고도 가장 고상한, 그리고 영원하고도 축복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생명은 그 존재성과 일치하며 영원히 그 본질로서 선천적인 것이요 절대로 어떤 해를 받거나 가감 내지는 어떤 타락에 의하여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토마스 R.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는 “영생은 더없는 기쁨(bliss)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변혁(transformation)을 수반한다. 그리해서 믿는자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어진다”고 말한다.²⁴⁾

경건은 ‘좋은, 잘(well),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진 ‘유’와 ‘예배하다’는 뜻을 가진 ‘세보마이’의 합성어로서 가치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⁵⁾ 따라서 생명과 경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낱말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게 됨을 깨우쳐 주고 있다. 즉 생명은 경건의 근원이고 경건은 생명의 열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경건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영적 요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조에)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고 무장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바로 인간

22) Marvin R.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46), p. 39.

23) R.C.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Vol. 1,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43), p. 38.

24) Thomas R. Schreiner, op. cit., p. 292.

25) 경건은 신약성경 중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 3:12, 딤후 2:2, 3:16, 4:7, 8, 6:3, 5, 6, 11, 딤후 3:5, 딤후 1:1, 뱀후 1:3, 6, 7, 3:11.

을 죄의 형벌과 과멸로 부터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롬 1:16).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신적 능력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근거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의 원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능력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아는 것의 진보가 거룩에 있어서의 진보가 되어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동력과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앎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므로 그리스도를 충만히 아는 것(에피그노시스: 1:2과 1:3에 사용됨)이 영적 능력과 영적 성장의 근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²⁶⁾

바클레이는 본문의 “에피그노시스”를 “증가하는 지식”, “풍부한 지식”으로 해석하여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알수록 더욱 증가되어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서 아는 일이며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설명한다(요 17:3).²⁷⁾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요 1:14)과 덕(벰전 2:21-24)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한 삶으로 부르셨다.²⁸⁾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

26) 리차드 바웁캄(Richard J. Bauckham)은 본문 2절의 “앎(에피그노시스)”은 그리스도인의 전 삶이 근거하고 있는 근본적인 구원지식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Word Biblical Commentary: Jude, 2 Peter*, vol. 50, (Waco, Texas: Word Books Pub., 1983), p. 170.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성경본문은 다음과 같다: 롬 1:28, 3:20, 10:2, 엡 1:17, 4:13, 빌 1:9, 골 1:9, 10, 2:2, 3:10, 딤펴전 2:4, 딤후 2:25, 3:7, 딤펴 1:1, 몬 6, 히 10:26, 벰후 1:2, 3, 8, 2:20.

27) William Barclay, op. cit., pp. 294-296.

28) 본문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성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신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부르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롬 1:6, 8:28, 30, 9:11, 엡 1:18, 살전 4:7), 3절 초두에 나타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의

게 하시는 효과적인 거룩한 부르심이요(살전 4:7, 5:24, 벧전 1:15, 2:21, 5:10),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다(막 1:16-20, 요 6:37, 행 13:48, 16:14). 본문의 “영광”은 “신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광채와 위엄”을 의미하고, “덕”은 “그리스도의 선(goodness)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성(the divine moral excellence)”을 의미한다.²⁹⁾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신적 능력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의 신성을 인식하게 되어지고(눅 9:27-36, 요 1:3-5, 14, 2:1-11, 20:26-29, 벧후 1:16-18),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마 20:28, 눅 2:52, 히 2:17, 4:15, 7:26, 벧전 2:21-23, 요1서 3:3). 리차드 J. 바웬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표현은 “그의 신기한 능력(신적 능력)”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³⁰⁾

1장 4절의 “이로써 그 보배롭고³¹⁾ 지극히 큰 약속³²⁾을 우리에게 주사”에서 “이로써”(through these)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즉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자” 역시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29) Thomas R. Schreiner, op. cit., p. 293. 노만 힐러(Norman Hillyer)는 “기본적으로 덕(아레테)은 가치(worth)를 나타낸다.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도덕적 선(moral goodness)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는 신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divine miracle-working power)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1 and 2 Peter, Jud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2), p. 161. 그러나 Douglas J. Moo(더글라스 J. 무)는 “성품의 탁월성(excellence of character)”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2 Peter and Jud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p. 43.

30) Richard J. Bauckham, *Word Biblical Commentary: Jude, 2 Peter*, vol. 50, (Waco, Texas: Word Books Pub., 1983), p. 179.

31) “보배롭고”라는 단어는 “가치있는, 귀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2) 원문 성경에는 복수형인 “약속들”로 되어 있다.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란 무엇인가? 이 약속들이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탁월성에 참여하며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이클 그린은 해석하고 있다.³³⁾ 그러나 켈리는 이 약속들을 “그리스도의 재림(1:16, 3:4, 9, 12)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설립(3:13)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1:11)에 대한 약속”이라고 설명한다.³⁴⁾ 이외에도 성경에는 믿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용서하심에 대한 약속(요 3:18, 롬 8:1, 요1서 1:9), 영생의 약속(요 3:16), 기도 응답의 약속(시 50:15, 마 7:7-12, 요 16:24), 시험에 대한 극복과 승리에 대한 약속(고전 10:13), 부활의 약속(요 11:25, 고전 15:21-23), 도움의 약속(사 41:10, 13-14), 영원한 보상의 약속(계 22:12)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들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³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다(고후 5:17, 롬 8:9, 갈 2:20, 요1서 3:3).³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고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에서의 도덕적 부패를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물질세계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썩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욕망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33) Michael Green,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and the General Epistle of Jude*, (London: The Tyndale Press, 1968), p. 64.

34) J.N.D. Kelly, *op. cit.*, p. 301.

35) 신의 성품이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진척에 따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36) 이 구절은 가정법 구문으로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목적)”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8가지 덕성들을 배양해 나가는데 총력³⁷⁾을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³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편에서의 의지나 소원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4. 영성개발의 방편들 (The Means of Spirituality Development)

사도 베드로는 본문 1장 1-11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벧후 1:2-3, 요 17:3, 골 1:10), 둘째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벧후 1:4)임을 밝혀주고 있다.

사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는 특별한 교육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으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고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후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탁월한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37) “더욱 힘써”라는 말씀은 “모든 부지런함을 기울여서”라는 의미로,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되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긴급한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38) 리차드 바웬햄(Richard J. Bauckham)은 본문 5절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덕성은 다음의 덕성을 산출하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너희의 믿음에 의해서 덕을 공급하라). 또한 각각의 덕성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Word Biblical Commentary: Jude, 2 Peter*, vol. 50, (Waco, Texas: Word Books Pub., 1983), pp. 184-185.

없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한 후에(벧후 1:1-4)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음(벧후 1: 5-7, 10)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 5절에서 7절의 7가지 덕성들을 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성도는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본문 3-4절에서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에 대한 요청을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거룩에 대한 권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³⁹⁾ 영성개발은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무활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혜의 삶은 지속적인 영성개발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다.

1) 믿음: 영성개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본문 1절에서의 ‘보배로운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신뢰(personal faith or trust)를 의미하며⁴⁰⁾ 영적 생활의 기초이다. 이 덕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것이다.

39) Thomas R. Schreiner, op. cit., p. 298.

40) Thomas R. Schreiner, op. cit., p. 299.

이 덕성은 영성 개발의 출발점이며(롬 5:1, 엡 2:8-9, 히 11:6), 다른 덕성들의 기초가 되며 다른 덕성들이 흘러내리는 근원이다(롬 15:13, 히 11:27, 약 2:26). 존 맥아더(John MacArthur)는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열매가 자라는 토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⁴¹⁾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따라서 뒤따르는 7가지 덕성들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결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본문 8절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는 언급은 나머지 7가지 덕성들이 믿음의 열매됨을 암시해 주고 있다. 칼빈(Calvin)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덕목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²⁾

2) 덕: 도덕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

덕은 “아레테”라는 말로서 도덕적인 탁월성(moral excellence)을 의미한다.⁴³⁾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벧후 1:3).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삶 속에 이 덕을 나타내야만 한다(빌 4:8, 벧전 2:9). 성도의 매일의 행위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성경한 윤리적 삶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John MacArthur, Jr., op. cit., p. 39.

42)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op. cit., p. 331.

43) “덕”(아레테)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빌 4:8, 벧전 2:9, 벧후 1:3,5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의 적절한 성취를 뜻하는 단어였다. 즉 칼의 아레테는 잘 베는 것이고 말의 탁월성은 잘 달리는데 있고, 토양의 아레테는 비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리차드 C. H. 렌스키(Richard C. H. Lenski)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말 아래에 감춘 등불과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밖으로 비추어야 한다(마 5:15, 16). 믿음의 명성과 칭찬은 알려져야 한다. 그것은 이 덕(아레테)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유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방종자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칭찬과 명성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의 적절한 명성을 가져야 하며 그 명성의 빛은 비추어야만 한다.”⁴⁴⁾

따라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본문의 “아레테”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실제적인 양선”(practical goodness) 혹은 “탁월함의 구체적인 행위들”(concrete deeds of excellence),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인격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 주어야 한다(벰전 2:9, 21-24). 그리스도는 최고 최선의 인간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탁월성이란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닮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박윤선 박사는 “도덕 실행의 활동력”이라고 말한다.⁴⁶⁾

앞서 언급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44)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1 and 2 Epistles of Peter, the three Epistles of John, and the Epistle of Jude*,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6), p. 267.

45) Michael Green, op. cit., pp. 63, 67, 68.

46) 박윤선, *성경주석: 히브리서, 공동서신*, 성문사, 1956, p. 449.

맺게 되기 때문이며(약 2:14),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이다(약 2:22). 또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살전 1:3),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 하심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덕을 산출하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지식: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는 것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적 원리들과 방법들에 대한 보다 풍성한 이해를 의미하며(빌 1:10, 히 5:14),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과 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지식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는 것을 뜻한다. 켈리(Kelly)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discernment of God’s will and purpose)”(엡 5:17, 빌 1:9, 히 5:14)을 뜻하는 것으로,⁴⁷⁾ 그린(Green)은 “영적인 이해력”(spiritual understanding)이라고 설명하였고,⁴⁸⁾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해석하였고,⁴⁹⁾ 케네스 O. 겐젤(Kenneth O. Gangel)은 이 지식은 “성령을 통하여 생겨나며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적 지식”⁵⁰⁾으로, 벵겔(Bengel)은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혜”로,⁵¹⁾ 존 맥아더는 “영적 분별과 지혜의 근거인 신적 진리(divine truth)”를 의미하는 것(롬 15:14, 골 1:9)으로 이 진리에 대한 부지런한 연구와 묵상을

47) J.N.D. Kelly, op. cit., p. 306.

48) Michael Green, op. cit., p. 150.

49) 박윤선, op. cit., p. 449.

50)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 (ed),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New Testament*,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3), p. 865.

51) Michael Green, op. cit., 68.

수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요 5:39, 행 17:11, 딤후 2:15, 신 11:18, 시 119:97, 105).⁵²⁾

마이클 그린은 “지식은 결코 신자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신앙은 반지식주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거짓된 지식을 치료하는 것은 무식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이다”고 언급하고 있다.⁵³⁾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발전하는 생활(developing life)이다. 무진장의 보배와 같이 캐고 또 캐도 다 켤 수 없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병행되어진다면, 이것은 이단과 배교를 막는 안전장치가 되며 동시에 은혜 안에서의 성장의 방편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⁵⁴⁾ 또한 성경은 잠언 19장 2절에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It is not good to have zeal without knowledge, nor to be hasty and miss the way)”고 지식 없는 열심이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지식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지식임을 알 수 있으며(요 15:15, 롬 15:14, 고전 13:2, 벰전 3:7)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리차드 C. H. 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씀의 무지와 그것의 교훈들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은 명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에 적합한 명성[아레테]을 훔쳐가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 명성[아레테]을 높인다. … 분별없고 무지한 믿음은 사람들의 조소를 받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조롱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식은 악을 무찌르는 무기이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52) John MacArthur, op. cit., pp. 40-41.

53) Michael Green, op. cit., 68.

54) Michael Green, op. cit., 151.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엡 6:17). 무지로써 전쟁하러 가므로 조소를 자초하지 말라.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명성을 구하라.”⁵⁵⁾ 이 지식에 대하여, 리차드 바웬(Richard J. Bauckham)은 “덕성있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지혜와 통찰력이며, 이것은 점진적으로 획득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⁵⁶⁾

이 지식의 덕성이 절제의 덕성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참된 지식은 절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벧전 1:14). 또한 이 지식의 덕성이 덕의 덕성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도덕적인 탁월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덕성들 가운데 지식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우려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나중에 후회하였던 그런 과오를 많이 범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4)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로서 이것은 엄격한 훈련에 들어가는 것(go into strict training)으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의미한다(갈 5:23, 고전 9:25, 딤후 1:8). 이 절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어진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대신에 정욕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켈리(Kelly)는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55) R. C. H. Lenski, op. cit., pp. 267-268.

56) Richard J. Bauckham, *Word Biblical Commentary: Jude, 2 Peter*, vol. 50, (Waco, Texas: Word Books Pub., 1983), p. 186.

있어서의 자기훈련(self-disciplin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senses)”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⁷⁾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간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갈 5:16-18), 죄악의 자리로 이끌고 갈려는 영혼의 대적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절제하라는 것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방종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에 항상 지배를 받게 되지만, 영성개발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때문에 자신의 모든 탐욕과 욕망을 완전한 통제아래 둘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의 지식과 연결된 이 적절한 절제는 모든 육체적 욕망들을 통제하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지, 정, 의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삶은 무절제와 방탕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벧후 2:2, 10, 13, 14).

본문의 여러 덕성들 가운데서 절제의 덕성이 지식의 덕성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에 온전한 자기 통제의 실천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며(벧전 1:14), 이 덕성이 인내의 덕성 앞에 있는 것은 절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참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57) J.N.D. Kelly, *op. cit.*, p. 306.

5) 인내: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란 말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머문다”는 뜻으로, 난관이나 역경 중에도 굴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디어 나가는 마음의 기질을 의미한다(고후 1:6, 6:4, 골 1:11, 살전 1:3, 살후 1:4). 가장 큰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진다. 약 1장 3절과 4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며 인내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인내한다(막 13:13, 눅 8:15, 롬 5:3-4, 8:25, 딤후 6:11, 딤후 3:10, 딤후 2:2, 히 12:1-2, 약 5:11, 계 2:2-3, 19). 초대교회 당시 스토아학파의 인내는 맹목적인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기독교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시련과 핍박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셨다(히 12:2).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바라보며 겉보기에 불행스럽게 보이는 사건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바클레이는 인내는 “인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라도 전진에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⁸⁾

앞서 언급된 절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인내가 없을 때 결국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제에

58) William Barclay, op. cit., p. 303.

이어 인내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참된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인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에 이 두 덕성들은 피차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된 절제와 연결되어진 인내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보호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6) 경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경건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행 2:25-28).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였던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진다(딤후전 4:8). 또한 이 경건은 신약의 목회서신들 가운데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딤후전 2:2, 3:16, 4:7-8, 6:3, 5-6, 11, 딤후 3:5, 딤후 1:1, 2:12).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벧후 3:11). 마이클 그린은 경건이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⁹⁾ 바클레이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이웃에 대하여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⁰⁾ 더글라스 J. 무(Douglas J. Moo)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하게 되는 능력을 주신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¹⁾

59) Michael Green, op. cit., 70.

60) William Barclay, op. cit., p. 304.

앞서 언급되어진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고 견디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의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내에 이어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약의 율과 같이 참된 인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경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내와 경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경건은 바로 인내로 말미암아 이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이다(롬 5:4)”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⁶²⁾

7) 형제우애: 함께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우애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요 13:35, 롬 12:10, 살전 4:9, 히 13:1, 벧전 1:22, 3:8, 요일 5:1). 이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기독교공동체의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용어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2장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해주는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 형제 우애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벧후 2:13-14, 18).

61) Douglas J. Moo, op. cit., p. 46.

62) 매튜헨리, *성서주석 시리즈: 베드로, 요한, 유다, 계시록*, 서기산역, 기독교문사, 1979, p. 161.

앞서 언급된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경건의 자리에 있는 믿는 자는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기에 경건과 형제우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요 1서 4:21).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형제우애를 실천하지 못할 때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약 1:27), 경건의 덕성 다음에 형제우애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8) 사랑: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치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란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 원수까지라도 예외없이 사랑하는 것이다(마 5:44, 요1서 4:16).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요 3:16, 고후 6:6, 엡 4:2, 골 3:14, 살전 3:12, 딤후 4:12, 6:11, 딤후 2:22, 3:10, 딤후 2:2, 요일 4:9-11). 따라서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1) 창조적인 사랑(롬 5:8)이며, (2) 희생적인 사랑이고(엡 5:2, 25, 갈 2:20), (3) 변치않는 사랑이며(히 13:8, 요 13:1), (4) 늘 새로운 사랑이다(애 3:22-23).

이와 같이,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의지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랑의 덕성은 믿음의 가장 값진 열매이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시작과 원천이듯이 사랑은 완성된 면류관으로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⁶³⁾ 그러므로 이 사랑의 덕성을 풍성히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덕성들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흘러내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로(the most excellent way)이며

63) R. C. H. Lenski, op. cit., p. 270.

(고전 12:31), 다른 덕성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며(골 3:14), 영적 훈육의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다(딤후 1:5).

본장 5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8가지 덕성들 중 처음 5가지 덕성들은 인간의 내적 삶 내지는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들이며, 나머지 두 덕성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덕성들이다. 이런 덕성들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골 1:4-5, 살전 1:3, 살후 1:3-4).

데이비드 배런은 그가 쓴 “모세의 경영전략”이라는 책에서 “믿음, 연민, 추진력, 자제력, 끈기 등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속성들이다”라고 말함으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8가지 덕성들이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내면적 자질임을 언급하였다.⁶⁴⁾ 오늘날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도 그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Principle-Centered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변형적 지도자(Transformational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주도권, 인내와 존중, 끈기와 용기,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⁶⁵⁾

1장 7절에 “공급하라”는 말씀은 이러한 덕성들을 배양해 나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쏟아 부으라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서 “충분히 공급하라”는 의미이다.

64) 데이비드 배런, 리네트 파드와, *모세의 경영전략*, 이상헌 역, 위즈덤 하우스, 2000, p. 42.

65) 스티븐 코비,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정섭 박창규 역, 김영사, 2001, p. 442.

5. 영성개발의 결과 (The Results of of Spirituality Development)

1) 영성개발에 힘쓰게 되어질 때 생산적이고 열매맺는 삶을 살게 됨

1장 8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8가지 덕들을 배양해 나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즉, 영적으로 생산적이고 유능한 삶(능력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다(골 1:10-12).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If you possess theses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이라는 말씀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영성(*effective and productive spirituality*)은 단순히 8가지 덕성들을 소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개발해 나갈 때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흡족한즉”이라는 단어는 현재분사형으로 그리스도인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성개발에 힘써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장 8절의 “게으르지 않고”라는 말씀은 “효력없게 하지 않고, 무력하게 하지 않고”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성장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열매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고(고전 3:1) 아직도 영적 젓(히 5:12-13)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자들이다. 유다는 거짓교사들의 특징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열매없는 삶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유 12).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성도가 자신의 영성을 함양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끌게 되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⁶⁶⁾

2) 영성개발에 힘쓰지 아니할 때 영적 소경이 되어지고 영적 통찰력에 결핍을 초래함

이러한 8가지 덕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지 못할 때에 나타나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불행스러운 결과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란 5-7절에 언급된 8가지 덕성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덕성들의 개발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소경”은 진리를 볼 수 없거나 보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다(마 15:14, 23:16, 24, 눅 6:39, 요 9:40-41, 12:40, 롬 2:19).⁶⁷⁾ 요한 1서 2장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덕성들 중 하나인 형제우애를 무시하게 될 때에 그는 영적 소경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원시치 못하고”라는 말은 “눈을 깜박 깜박하다, 눈을 가리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단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보다”는 의미로 영성개발을 게을리 하므로 이 7가지 덕성들이 없는 사람은 눈을 깜박거리거나 고의적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세상의

66) D. M. Lloyd Jones, *op. cit.*, p. 48.

67) 리차드 J. 바웬카는 본문에서 소경이라는 단어는 “원시치 못하다”는 단어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Richard J. Bauckham, *op. cit.*, p. 189.

것들은 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멀리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에 결핍과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요1서 2:11, 계 3:17).

마이클 그린은 “영적인 소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부름 받는 인격의 미덕들로부터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눈에 나타난다”라고 말한다.⁶⁸⁾ 그래서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기억을 차단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잊어버림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의 실패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개인의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회심과 세례 때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3) 영성개발에 힘쓰게 되어질 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배교하지 않게 됨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영성개발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실족지 않게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1장 10절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의 정관사에 의해 수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택하심이 먼저이고 (엡 1:3) 부르심은 나중에지만(롬 8:30, 11:29, 딤후 1:9),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저 기록하므로 인간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68) Michael Green, op. cit., 73.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서는 “더욱 힘써 … 굳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빌 2:12-13). 인간의 책임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진보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강조점은 인간의 책임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5절에서 7절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덕성들을 개발해 나감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⁶⁹⁾ 이렇게 영성 개발을 이루어 나감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⁷⁰⁾

69)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교회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개혁의 때에 교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다(벧후 1:10, 딤후 1:12, 4:7-8, 롬 8:34-39). (2)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잘 성숙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3)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좋은 일군이 되어지고 더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느 8:10).-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어 당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신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며 그들을 더 많이 도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 *op. cit.*, pp. 37-39.

스펠전(C.H. Spurgeon)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찬만 할 수 없기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스펠전 설교전집: 베드로전후서, 보문출판사, 1990, p. 493).

70)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본문 10절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중심절이며, 전체 서신의 목적이 본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op. cit.*, p. 32.

1장 10절의 “너희가 이것을⁷¹⁾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덕성들의 개발의 목적이 능히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10절의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원문상으로 볼 때 베드로전후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중 부정으로 강조용법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결단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즉, 영적 덕성들의 개발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으며, 요동치 않게 되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⁷²⁾

노만 힐러는 “[실족지 아니한다는] 단어는 결코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거나 불행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⁷³⁾ 바클레이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결코 행군에서 나오되거나 뒤쳐지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의 계속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⁷⁴⁾ 리차드 J. 바웬카는 본문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유다서 24절과 같은 의미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⁷⁵⁾ 토마스 R. 슈라이너는 경건한 덕성들을 실천에 옮길 때에 배교(apostasy)를 피하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⁷⁶⁾

71)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벵겔(Bengel)은 5-7절에 언급되고 있는 덕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John A. Bengel,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 1981), p. 765. 토마스 R.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도 벵겔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op. cit., p. 305.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해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2) 본문에서 “실족하다”는 “프타이오”라는 단어로써 야고보서 2장 10절과 3장 2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단어가 “범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문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 만일에 이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영성개발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과 상치되어지기 때문이다(마 6:12).

73) Norman Hillyer, op. cit., p. 169.

74) William Barclay, op. cit., p. 307.

75) Richard J. Bauckham, op. cit., p. 191.

4) 영성개발에 힘쓰게 되어질 때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짐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이라는 말씀은 ‘5-7절에 언급된 덕성들의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이라는 뜻이다. 또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주님과 그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우주적인 시간의 제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다(시 145:13, 사 9:7, 단 2:44, 7:13-14, 눅 1:32-33, 계 11:15).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덕성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타락하거나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다서 24절의 말씀그대로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은 승리자로서 화려한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금의환향이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11절의 말씀은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8가지 덕성들의 함양을 계속적으로 힘쓰는 자는 마침내 승리자로서의 환희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게 받게 될 풍성한 보상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전 3:11-14, 고후 5:10, 딤후 4:8, 벰전 5:4, 계 2:10, 22:12). 유명한 주경 신학자인 벵겔(John Albert Bengel)이 말한바와 같이 “그대는 난파선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불 속에서 탈출해 나온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처럼 들어가게 될 것이다.”⁷⁷⁾

1장 7절의 “공급하리”는 단어와 1장 11절의 “주시리라”는 단어는 원문상에

76) Thomas R. Schreiner, op. cit., p. 301.

77) John A. Bengel,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 1981), p. 765.

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⁷⁸⁾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성개발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제공해 나간다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풍성히 제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6. 결 론(Conclusion)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본문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개발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활동이나 무의욕에서 일어나지 않음을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은혜의 삶은 지속적인 영성개발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영성개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근거하고 있으며(벧후 1:1),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이 영성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약속과 자원을 주셨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다(벧후 1:3-4).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개발은 일평생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8가지 덕성들

78) 벧후 1장 7절의 “공급하라”는 단어와 1장 11절의 “주시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써 “에피코레게오”이다. 이 단어는 “어떤 고상한 일에 자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쏟아 부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William Barclay, op. cit., 299).

을 함양해 나갈 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지고 영생의 그 나라에 승리자로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천명해 주고 있다.

영국의 강해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본문 5-7절까지의 덕성들을 계속하여 개발해 나갈 때 전 인생을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의기양양하게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죽음은 다만 영광스러운 인생의 출발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⁷⁹⁾

참된 영성에 있어서의 진보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고 또한 지원하시는 궁극적인 동인이 되신다.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므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끊임없는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영성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대한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적 성숙을 향한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8가지 덕들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더욱 풍성히 개발해 나가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세력에 의해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79) D. M. Lloyd Jones, op. cit., pp. 49-51.

참고문헌

- Barclay, William.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Bauckham, Richard J. *Word Biblical Commentary: Jude, 2 Peter*. vol. 50. Waco, Texas: Word Books Pub., 1983.
- Bengel, John A.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 1981.
- Green, Michael.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and the General Epistle of Jude*. London: The Tyndale Press, 1968.
- Hillyer, Norman.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1 and 2 Peter, Jud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2.
- Kelly, J.N.D.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Jude*. Peabody, Massachusetts, 1969.
- Kistemaker, Simon J.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the Epistle of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7.
- Lenski, R.C.H. *The Interpretation of St. John's Gospel*. Vol. 1.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43.
- _____. *The Interpretation of 1 and 2 Epistles of Peter, the three Epistles of John, and the Epistles of Jude*.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6.
- Lloyd Jones, D. M. *Expository Sermons on 2 Peter*.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3.
- MacArthur, Jr., John.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Peter & Jude*. Chicago: Moody Publishers, 2005.
- Moo, Douglas J.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2 Peter and Jude*. Grand

-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 Robertson, A.T.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원어대해설: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Vol. VI. 요단출판사, 1985.
- Schreiner, Thomas R.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2 Peter, Jude*. Vol. 37.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3.
- Torrance, David W., and Thomas F. Torrance (ed). *Calvin's Commentaries: Hebrews and 1 and 2 Peter*. Grand Rapids: Eerdmans, 1963.
- Vincent, Marvin R.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46.
- Walvoord, John F., and Roy B. Zuck (ed).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New Testament*.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3.
- 데이비드 배런, 리네트 파드와. *모세의 경영전략*. 이상현 역, 위즈덤 하우스, 2000.
- 매튜헨리. *성서주석 시리즈: 베드로, 요한, 유다, 계시록*. 서기산 역, 기독교문사, 1979.
- 박윤선. *성경주석: 히브리서, 공동서신*. 성문사, 1956.
- 스펠진. *스펠진 설교전집: 베드로전후서*. 보문출판사, 1990.
- 스티븐 코비.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김영사, 2001.
- 이중표. *교회발전을 위한 전도개발*. 쿤란출판사, 1999.
- 시앙-양탄, 더글라스 H 그레그. *성령과의 즐거운 동행*. 황수철 역,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장대현.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육*. 타문화권목회연구원, 1999.
- 케네스 O. 젠젤. *교회교육의 리더십*. 권명달 역, 보이서사, 1991.